



만나다

KAPE, 축산 명인을 만나다

청학농장 대표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강영희 / 오덕제

글
홍아름
사진
염태현



한돈은 내 운명! 어화둥둥 내 한돈아

1984년도부터 30년 이상 축산의 길을 걸어온 <청학농장> 강영희(기), 오덕제(79) 대표. 건축사업을 하다 처남의 권유로 축산업과의 인연을 시작했다. 이처럼 진철한 사업이 있을까 감탄하며 운명처럼 다가온 한돈! 덕분에 한돈 외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한돈 바라기 두 대표를 만나봤다.



06:00

3,350두와의

눈 맞춤으로 여는 하루



강 대표와 오 대표는 눈 뜨자마자 축사로 향한다. 밤새 돼지들의 건강을 살피고 아침밥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매일 3,350두와의 눈 맞춤으로 하루를 연지도 30년이 넘었다. 언제부턴가 내 밥보다 돼지들 밥이 더 중요해졌다는 두 대표는 하루 2번 돼지들에게 미생물을 첨가한 사료를 주며 건강을 살핀다. 매일 심 없이 돼지들을 돌보느라 힘들 때도 있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노력한 만큼 결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HACCP, 2010년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깨끗하게 관리한 덕분에 학교 급식으로도 납품하고 있다. 아이들이 먹는 것인 만큼 더욱 안전하고 정결한 먹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13:00

한 번의 아픔을 딛고 더욱 철저해진 관리

하지만 30년 가까이 축산업을 하면서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한번은 스위지가 망가져 통풍이 안 되는 바람에 축사에 있던 돼지들이 모두 질식사한 적이 있었다. 당시 <청학농장>에서는 약 500두의 한돈을 키우고 있었다. 오 대표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 당시의 피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끼며 키우던 생명을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슬프게 했다. 그 날 이후 두 대표는 한돈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었다. 사무실 한쪽에 있는 기계들은 돼지들이 있는 방 온도를 자동으로 표시해준다. 사무실에 있다가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달려가 돼지들을 살핀다. “적정 온도가 아니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내 자식처럼 각별하고 소중하기에 더욱 신경 씁니다. 그때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17:00

변치 않고

이어갈 원칙

<청학농장>에는 30년 가까이 축산 하면서 변치 않고 지켜온 원칙이 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농장만의 노하우를 적용해야 하며, 한돈을 자식 내하듯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채 차별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생명을 다루면서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란 돼지가 좋은 등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욕심 있는 두 대표가 그리는 <정학농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들은 앞으로 좋은 기술을 후배 축산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축산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구해 얻은 노하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축산인부터 한돈까지 모두가 행복할 <정학농장>의 미래가 기대된다. ㉞

